

당뇨 환자에서 코로나19에 속발한 털곰팡이증 1례

국립중앙의료원 내과¹,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², 국립중앙의료원 이비인후과³, 국립중앙의료원 병리과⁴

이예슬¹, 김수진³, 정은정⁴, 김민정², 김연재², 전재현², *진범식²

서론: 털곰팡이증은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인 감염으로 혈액암 등 면역저하와 당뇨병이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진단 후 털곰팡이증 발생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저 당뇨병 환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경우였다. 이중 코-눈-대뇌 털곰팡이증이 가장 빈번한 임상적 아형이며 두개내를 침범한 경우 사망률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안구주위 피부에 부종과 발적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에서 고혈당 이력을 고려해 털곰팡이증을 진단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94세 여자 환자로 고혈압, 당뇨, 심부전 병력이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진 후 타병원에서 nirmatrelvir/ritonavir, prednisolone 10mg를 복용하던 중 전신 쇠약감, 고혈당으로 코로나19 확진 4일째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내원 당시 혈당 842mg/dL, 당화혈색소 8.3%로 연속 인슐린 정주법 시작하였고 이후 간헐적 인슐린 투여요법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 입원 3일째 우안주위 부종, 발적(A)이 발생해 안과 및 피부과에 협진을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입원 4일째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며 고혈당 병력 고려해 털곰팡이증 의심하에 시행한 이비인후과 협진에서 비내시경 상 우측 비강 전체가 검은 가피로 덮여있는 소견 보여 경험적으로 liposomal amphotericin B투여 시작하였다. 입원 5일째 시행한 부비동 MRI검사의 조영 후 T1-weighted 영상에서 우측 하비갑개와 중비갑개에서 털곰팡이증에 합당한 비조영증강 소견(B)을 확인하였으며 우측 비강점막 조직검사에서는 PAS 염색상 넓고 격벽이 없는 균사(C)가 확인되어 털곰팡이증으로 진단하였다. 털곰팡이증 진단 시점에 이미 병변이 두개내를 침범하여 완전한 수술적 제거 및 경질막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수술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입원 7일째에는 좌측 시력도 상실되었으며 이후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입원 13일째 사망하였다.

결론: 털곰팡이증은 드문 질환이고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이므로 고혈당이 동반된 코로나19 환자에서 관련 증상 발생시 적극적인 진단적 접근 및 치료가 필요하다.

